



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

## 보도자료

제공일 : 2010. 3. 8.  
제공자 : 농림수산물부 동물방역과  
과 장 : 이 상 수  
사무관 : 손 경 자  
전 화 : 500-2080~1  
쪽 수 : 3P  
별첨자료 : 있음(4P)

이 자료는 2010년 3월 9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3월부터 시범운영 후 12월 본격도입

- 수입쇠고기의 원산지·유통기한을 휴대폰으로 꼭 확인하세요 -

- 2010년 3월부터 수입쇠고기를 판매하는 대형마트, 정육점 등에 휴대폰으로 원산지·유통기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『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』이 시범운영 된다.
  -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발표한 「식품안전종합대책」(‘08.7월)에 따라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입쇠고기 위생안전에 대한 범국가적인 관심에 적극 부응하고자,
  - 「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」구축을 완료(‘10.2월)하고 2010년 3월부터 이마트, 갤러리아 백화점 등 일부 대형유통매장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한 후 2010년 12월 중에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농식품부는 2010년 3월 「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」의 시범운영에 앞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일반소비자 1,000명 및 한우 사육농가 300명을 대상으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.

- 소비자의 경우 91%가 도입필요성을 크게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,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는 수입쇠고기 이력정보로는 원산지, 유통기한 순으로 나타났고,
  - 한우농가의 75%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둔갑을 막을 수 있어서 한우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.
- 본 시스템은 수입관련 영업자에게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관리토록 함으로써 위해(危害)사고 발생시 긴급 회수를 지원하고, 국내산 쇠고기이력제도 시행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권리 제공을 목적으로 구축되었다.
- 쇠고기 수입업자와 유통단계별 영업자 등은 수입쇠고기 박스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착하고 거래관련 정보를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·관리하게 된다.
  - 소비자는 시스템에 기록된 원산지, 유통기한, 냉장·냉동 여부 등 수입쇠고기 이력정보를 12자리 수입쇠고기 유통식별번호를 통해 휴대폰 인터넷 접속번호(8226)나 인터넷 ([www.meatwatch.go.kr](http://www.meatwatch.go.kr)) 등을 이용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.
  - 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는 쇠고기를 수출한 상대국에서 위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수대상 쇠고기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수입쇠고기의 유통을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.
- 시스템에 기록된 위해 대상 쇠고기의 유통이력 정보가 모든 유통단계와 각 판매장 등으로 시스템을 통해 전송되며, 전송된 정보를 통해 중간 유통 중인 쇠고기는 입·출고 단계에서 즉각 회수된다.

- 판매장으로 입고된 쇠고기는 네트워크 기반(인터넷 등)의 전자저울에서 구매직전에 걸러지게 됨에 따라 소비자는 위해 쇠고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.
- 농식품부 관계자는 “앞으로 네트워크 기반이 없는 영세정육점 영업자도 신용카드 단말기(전화선)를 이용해 위해쇠고기 대상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입쇠고기 구매 소비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- 이러한 시스템은 3월부터 고기스토아 등 네트워크 기반이 없는 정육점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
-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월 9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소비자단체 및 한우생산자단체, 수입쇠고기 관련 단체, 농식품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하여 『수입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』 구축 최종완료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.

<별첨1>

##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추진개요

- ◇ 수입쇠고기 유통투명성 강화로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
  - 거래단계별 유통정보 실시간 관리로 사고 발생시 긴급회수
    - \* 회수대상 수입쇠고기가 매장 계산대 등에 올라오면 자동으로 계산 거부
  - 국내산 쇠고기 이력제 시행과 더불어 소비자 안심도 제고를 위하여 수입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정보 제공
    - \* 제공정보 : 원산지, 유통기한, 수출국 도축·가공장, 수출회사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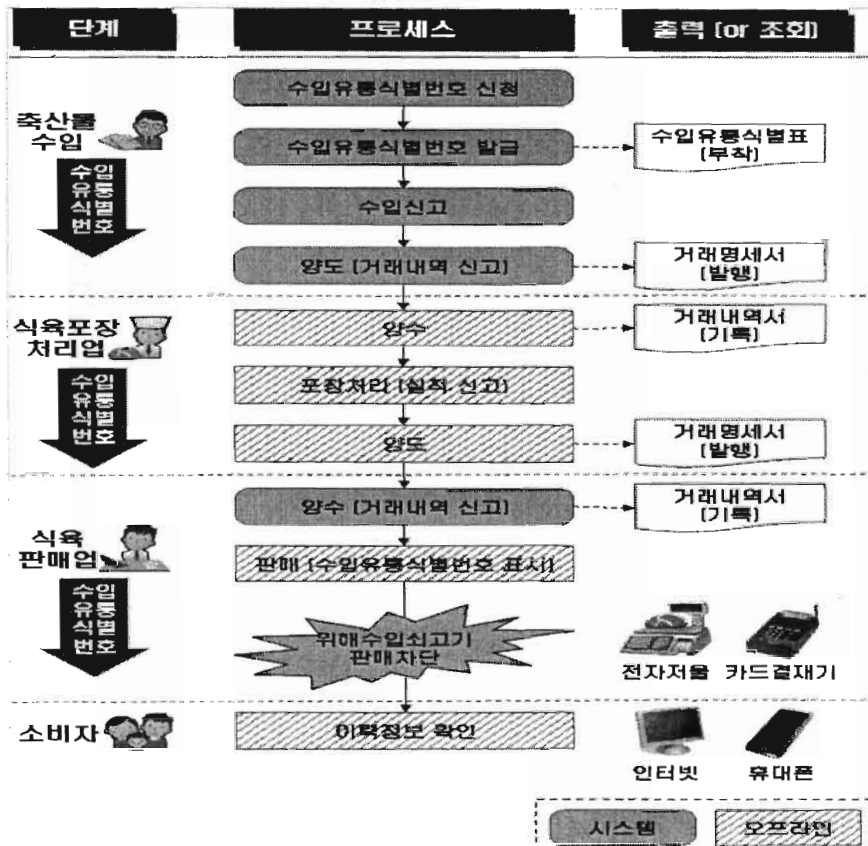
### 가 추진현황

- 식품안전종합대책(총리실, 관계부처 합동, '08.7.11)에 수입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이력 관리체계 정비 계획 포함
  - \* 1단계 :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한 거래기록(B/L번호 등) 의무화('08.12)
  - \* 2단계 : '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' 도입('10.12)
-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시행규칙 개정('08.12.22), 유통경로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관리 등 의무화
  - 거래명세서 발급, 거래내역서류 작성·보관 판매 시 B/L번호를 표시
- 수입쇠고기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해 「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추진대책」 마련('09.11)
  -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전담조직 구성방안 마련 등
-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완료('10.2)
  - \* ISP수립('08.10~'09.2), 가상체험관 운영('09.3~5), 시스템 개발('09.7~'10.2)
- 의원입법으로 「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 중, 수입쇠고기 유통단계별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등 근거마련

## 나 향후 계획

- '10.12월 수입쇠고기유통이력시스템 본격시행 대비 시범사업 추진
  - 시스템 본격 시행 등에 대비하여 시범운영(3월~11월)
    - \* 참여업체 : 이마트(대형마트), 갤러리아백화점, 한중푸드(정육점) 등
- 「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」에 수입쇠고기 유통 이력제 법적장치 마련 및 하위법령마련 적극 추진('10.12월)

〈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제도 업무 흐름도〉



<별첨2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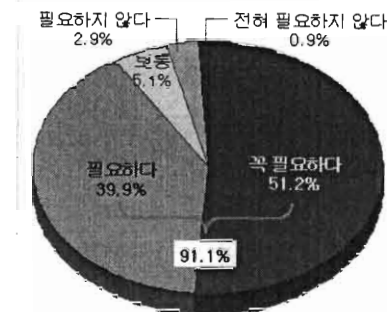
## 소비자 및 한우 농가 인식조사 결과

### ◇ 의식조사 대상

- 전국 일반 소비자 : 1,000 명
- 전국 한우농가 : 300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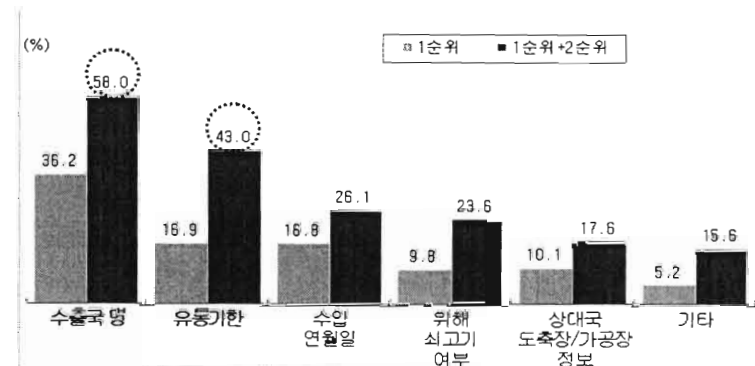
### □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

- 전국 일반 소비자 1,000명의 91.1%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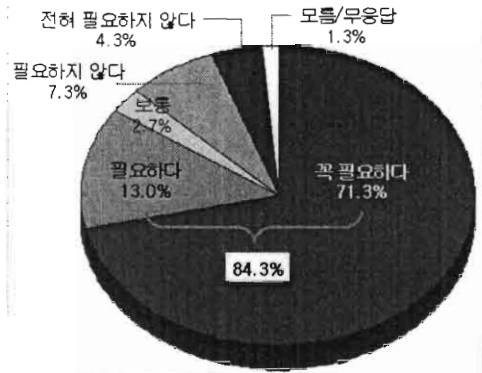
'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'이 필요한 이유는 '원산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', '국내산으로의 둔갑 방지', '수입유통이력을 알 수 있다'등 원산지와 유통 경로에 대한 신뢰감이 주된 찬성의 이유인 것으로 나타남.

- 소비자가 알고 싶은 유통이력 정보로는 수출국명, 유통기한, 수입 연월일 등의 순으로 응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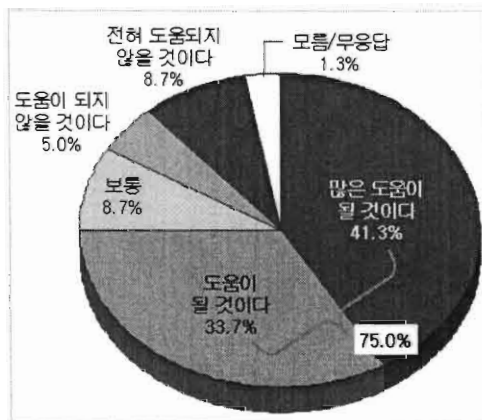
□ 한우농가 인식조사 결과

- 전국 한우농가의 300가구 중 84.3%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



'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'이 필요한 이유는 '국내산으로의 둔갑 방지', '한우와 수입쇠고기의 구분' 등 수입쇠고기의 둔갑 방지에 대한 이유가 주로 언급됨

-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한우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75%가 응답



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입쇠고기의 국내산 쇠고기로의 둔갑판매 방지가 한우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